

[‘스물다섯 스물하나’ 3화 중]

/정지현, 김승호 연출, 권도은 극본

	대사	씬
코치	<p>지금 내보고 주말하고 휴일을 니 코치하는데 반납 하라고?</p> <p>내가 자신 없거든?</p> <p>(하이고 소리를 내며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) 목표가 뭔데?</p> <p>(빠히 바라보며)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말인가?</p> <p>(하하 웃으며) 꿈 꿀 줄 아네.</p> <p>(고개를 절레 흔들며) 아니, 꿈 꿀 줄 모르는 아들이 태반이다. 근데 니는 꿈 꿀 줄 안다고.</p> <p>(탄청을 피우는 듯) 새벽에 훈련하면 몇 시부터 할 건데?</p> <p>(깜짝 놀라는 목소리로) 어?! 여섯시 반?! 니, 내보고 지금 최소한 여섯시에 일어나라 이 말인가?</p>	# 코치 방